

COMMUNITY PROJECTS BY ARTISTS

인천

인천 배다리·우각로 ▶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마석 이야기

동두천 프로젝트

리포트

기획자 인터뷰



드라마고 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공공문화 표현집단인 ‘퍼포

먼스 반지하’를 만들어 7년

째 이끌어오고 있는 드라마고(본명 고정환). 성 앞에 ‘드라마’
를 붙여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브레히트에 대한 오마주
다. 인천 우각로에 위치한 ‘기억과 새로움의 풍경’이라는 자그
마한 공방에서 그를 만나, 우각로와 배다리길에서의 활동과
반지하가 지역에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물었다.

인터뷰 이육, 김혜영 자유기고가



“지역공동체를 위한 예술활동, 소통과 공유에 시간 들여야”

문화예술 우선 ‘퍼포먼스 반지하’(이하 반지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지하가 진행해온 활동들을 중심으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드라마고 퍼포먼스 반지하는 사회적 문제를 ‘퍼포먼스’라는 행위적 방법으로 서술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반지하’로 하게 된 것은 반지하 주택에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경계에 놓인 자들’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2001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정보통신 검열의 문제, 군경의문사 추모식, 미대사관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울 시민단체들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퍼포먼스 활동을 2년 동안 활발히 했는데, 퍼포먼스만으로 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는 지역문화 활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반지하의 활동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해왔네요. (웃음)

드라마고 저희가 좀 복잡합니다. (웃음) 반지하가 만들어지기 전인 1999년부터 저희는 이미 인천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관심과 그것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택 관리 형태, 주택이 노후화되는 과정 등의 생활상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현존하는 삶의 방식들을 파괴하는 재개발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파괴 이전에 미리 기록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문화예술 반지하가 지역공동체를 위한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고 반지하는 예술과 지역공동체 중에 ‘지역공동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소



수자들이 왜 사회로부터 억압받는가, 왜 빈곤이 반복되는가, 그리고 왜 사회로부터 폭력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로부터의 폭력은 왜 발생하는가”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하지요. 공동체성의 파괴는 사는 데 있어 이웃도 없애고, 위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애버립니다. 사회 양극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며, 기존의 교육들은 오히려 사회 양극화 등의 자본주의의 문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그렇다면 1999년부터 인천에서 지속해온 작업이 <아트인시티 2007 인천 우각로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된 계기와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드라마고 2003년에 재개발 추진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대한 기록, 아이들 교육, 재개발에 대한 주민 교육을 하였습니다. 철거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대책위의 세입자 활동과 관련된 일도 했지요. 그러나 주민 스스로가 주민화되지 못하고, 재개발에 일찍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저항이 무기력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역사회 문화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2006년 지역사회 문화 교육터로 시작된 <언덕을 오르는 바닷길>이 그 활동이었지요. 그런데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생활이 파괴되는 방식의 도시 개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청소년 교육을 넘어 지역 운동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다리 지역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건설이 결정되면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천 우각로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도로 반대 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연대 요청도 있었지요. 그런데 도로를 막는 활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마을의 대안, 즉 문화적 대안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을 가꾸면서도 동시에 대화와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런 생각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이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인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드라마고 <인천 우각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키워드 내지는 컨셉은 ‘보존’과 ‘변화’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기억과 새로움의 풍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는 이미 2006년 배다리 양조장 건물에서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보존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 문화교육 과정에 관한 전시였는데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 공간의 이름, 프로젝트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반



지하는 기본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몇몇의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주민활동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역예술 공동체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산 약속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에는 주민들하고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참여가 전제된 <인천 우각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예술 공동체 학교에 대한 문화관광부와의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프로젝트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시작부터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군요. 그렇다면 우각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더불어 아쉬운 점이나 한계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드라마고

저희가 진행한 작품의 형태는 공간조형과 벽화 작업이 있습니다. 공간조형은 주민들의 공유공간을 만드는 작업이고, 벽화는 공간의 특성과 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1년 안에 소화해야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책방 벽화 작업 과정에서 현책방 주인들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시안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구요. 그러는 사이 프로젝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빈 집 앞에 조성한 한평공원은 본래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하여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조경을 직업으로 하시는 주민의 참여로 '새' 재료들로 '빨리', '제대로' 공사하듯이 작업되었습니다. 덕분에 공원조성의 기술적 난관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저 스스로 내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술적 행위와 공사의 차이가 무엇이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술은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민들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공유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함께 공동체를 위한 예술적 활동을 해가는 일은 분명 다른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죠.

문화예술

<인천 우각로 프로젝트>가 목적인 성과를 이루었는지요? 그리고 혹시 의외의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드라마고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 마을 내에 버려진 곳에 자연적 요소, 마을 역사·생활사 표현, 소통 공간이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스스로 집을 고치거나 가꾸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주민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집 외벽이나 담장의 벽화 작업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의 시각적인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기록과 소통 측면에서, 공간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이야기 주제로 삼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 상영회나 사진 전시 등이 이웃 간 소통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추후의 공동체 활동들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지요. 프로젝트 외적인 성과라면 지역대학에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과목



이 신설되고 연계가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지만, 원래 도원역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도원역 인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도공사가 이루어진 곳이지만, 구석에 방치된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 기념비만이 그곳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원역에 대한 CI 디자인 등을 인하대 시각정보디자인과 4학년 학생들에게 맡겼는데요. 결국은 학생들이 지역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실제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원역을 포기했어요. <지역사회와 미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교과였습니다. 그 수업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을 짓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 프로젝트 외부에 생겼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인천 우각로 프로젝트> 경우는 문화관광부로부터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들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고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연대단체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지 문화 실무자들 교육 등을 시행했습니다. 지역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활동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들의 자원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매개자 교육 주최나 초청을 통해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받습니다.

문화예술 ‘공공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적으로 어떻게 부르고 있으신지요? 혹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고 저희 반지하가 지역의 작은 단체 같지만, 현장작업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개념이나 논리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현장 활동이므로 이론이나 교육, 중앙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말이 가진 애매함과 마찬가지로, 공공미술이라는 말도 무척이나 모호한 말입니다. 도시건축이나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공공디자인’이나, 벽화나 장식미술적인 작가 중심의 ‘거리미술’이라든지,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등은 모두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즉 공동체 예술이 있습니다. 이미 언어가 있고, 무수한 사례들이 국제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또 미디어적 활동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아트’(Communication Art)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 사용되면, 어떤 사람은 일종의 건축적 디자인을 공공예술 혹은 공공미술로 볼 것이고요. 이러한 개념적 혼란 상태에 대해 저희는 개념을 구분하고 재정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과정을 거쳐 각각의 개념이 정립된 후에, 그런 것들을 통틀어 ‘공공적인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나눠 선명히 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공공적인 것이라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선명하게 보지 않고,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



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논란 외에도 공공적인 것, 퍼블릭(Public)과 소셜(Social) 내지는 커뮤니티(Community) 아트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올해는 많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문화예술 창작자의 '예술성'과 수용자의 '대중성' 사이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고 예술은 본래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만나는 것이고,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사회적으로 유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작가가 스스로는 개별적인 것을 드러낸다고 해도, 사회가 인정해야 작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작품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공부나 고민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합니다. 2006년 〈아트인시티〉 진행과정 중에서, 작가가 특정 지역에 작품 하나를 던져놓고, 사람들이 왜 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은 '작가의 땅'이 아니라, '지역민의 땅'이라는 점일 겁니다. 작가는 지역 예술에 접근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 유도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 예술은 제도권 안의 예술과 어떠한 관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고 우선 저는 기금 지원과 이에 근거한 제도의 간섭이 예술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견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요, 무엇보다 사회적 망을 존중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명분으로 예술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할 때는 과감히 싸우거나 저항해야 하구요. 그 제도가 공동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역할은 지원을 통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성과를 요구하고 간섭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중앙정부나 거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제도들만을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역정부 내지는 작은 제도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제도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마포구 염리동 장종환 동장님과 술을 한잔 했는데요. 동장님께서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아파트가 점점 생겨나고 있으니, 지역의 과거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창조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신다면 한국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